

**학부모 대응!
어렵지 않아요**

06

평가기준이 뭐예요?



[학습 내용]

1. 평가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알아보기
2. 적합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생각하기

[학습 목표]

- 자녀의 평가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예방방법을 알 수 있다.



1. 평가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알아보기

1) 침착하게 대처하기- 단정적인 대답보다는 해결책을 찾을 시간 마련하기

어떤 교사든지 평가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접하면 일단 불쾌감을 느낀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하는 월권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화부터 내버리면 이후 학부모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면 마음보다 더 강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학부모와 말싸움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화가 나서 어느 쪽으로든 단정적인 대답을 해버리면 그 이후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상, 중, 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수행평가기록부와 시험지 등의 평가 자료를 보고 가급적 빨리 평가 기준을 학부모에게 알려주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공감 + 의도 파악

학부모가 자녀의 평가 결과 때문에 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다수의 일반적인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뒤에서는 교사를 험담할지 몰라도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은 학부모의 마음을 다독이고 대화의 물꼬를 열어준다.



효과적인 공감은 교사가 학부모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중간 중간 학부모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다. 이때의 공감은 학부모의 말을 반복하여 이야기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네~’하고 대답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잘못된 공감은 학부모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치 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했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후의 상담을 진행한 3. 재민이의 예를 들면 학부모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국제 중학교 입학에서의 불이익이다.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되어 전화를 했다는 말 속에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의 오해도 풀어주어야 하지만 국제 중학교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해결하기

①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교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임을 알리기

학부모 입장에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수정하고 싶을 것이다.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이니 선생님 마음만 움직이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가에 관한 것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은 이에 따라 교장 선생님의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므로 수정 역시 절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곳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고교나 대학 진학 관련 사례의 경우 학부모의 항의를 받으면 교사 역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생활기록부의 평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때도 역시 교사 개인이 마음대로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함) 관련 내용을 평가업무 담당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과 상의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한 학급에서 수정을 하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때 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으므로 학교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대처가 중요하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교사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드백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학교 차원의 원칙을 정하여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1학기 말에 작성한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평어는 2학기에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므로 이에 대해 학부모의 문의가 들어온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한 후 교사의 긍정적 평가 의도를 전달한다.

② 진학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교사의 평가와 관련하여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민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국제중 입학에서 종합의견의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안내할 수 있다.

③ 교사의 긍정적인 의도 전달하기

교사들은 아이에 대한 평어를 쓸 때 아이의 발전에 자신의 평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는다. 언뜻 보기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단순히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어를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아이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평어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긍정적 평가 의도를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오해를 풀고 아이의 발전을 학부모와 함께 도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 이 과정에서 아이의 단점을 부각시키면 안 그래도 평가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 속상한 학부모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 순간 학부모는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소기의 목적은 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녀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한 후 말미에 한 두 마디 정도로 짧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면 된다.

2. 적합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생각하기

1) 평가는 교사의 고유 권한

평가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다. 교육과정을 진행한 후 그것에 대한 성취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평가라 한다면 교육과정을 지도한 교사가 말로 가장 분명한 평가의 책임자이다. 과거에는 교사만이 평가의 주체였지만 지금은 학습자도 자기 평가나 상호 평가의 방법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학습자도 교육과정에 참여한 배움의 주체이므로 평가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전문가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평가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다. 학부모는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도 참여한 것도 아니므로 학부모가 평가에 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가는 여전히 교사의 고유권한이다.

평가를 통해 우리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알 수 있고, 학습자에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자존감과 그들이 속한 가족의 분위기까지도 좌지우지 한다.

이렇듯 중요한 평가의 주체가 교사이고 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더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목표의 성취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인지, 평가가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등 평가 본연의 취지에 대해 생각하며 평가의 목표, 기준, 방법,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입력할 때 교사들끼리 상호 검증을 통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수행평가

요즘은 수행평가의 내용과 시기 등을 나이스에 올려 학부모들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학기 초 교사들이 모여 평가 관련 회의를 통해 평가 내용 및 시기, 기준 등을 정한다. 수행평가는 성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만 지필 평가와 같이 뚜렷한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특히나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평가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제시된 조건대로 성과를 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몇 가지의 조건에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태도를 평가할 때는 교사 자신의 평가를 우선으로 하되 학습자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모둠 평가)의 내용을 참고하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때로는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하고 수행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수행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의 수행 정도를 줄을 세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일정 성취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있으므로 이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일부 교사들은 1회 정도의 재시험을 허용하기도 한다. 막상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보니 이전에 세워놓은 평가 기준이 적합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같은 학년 또는 같은 과목을 담당한 교사들과 상의하여 일관된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평가에 임해야 한다.

수행평가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과 결과를 알려준다. 학생 스스로가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 이후의 논란을 예방한다. 평가 결과를 알려줄 때에는 학생을 점수로 서열화하기 보다는 평가 결과가 이후 학생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피드백 해준다.



3) 지필 평가

지필 평가의 경우 교과 타당도(검사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포함하고 있느냐), 교수 타당도(교수·학습 중에 가르치고 배운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었느냐)를 확보하기 위해 대개 이원목적분류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문항을 출제한다.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 연도에 낸 동일 범위의 본교 시험 문제나 문제집 등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문제를 내어서는 안 된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나눠준 몇 년 치의 이전 연도 문제지를 풀고 오는 경우가 많고, 해당 문제집을 운 좋게 풀어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준다면 형평성에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4) 채점에서 평가의 객관성 확보하기

입시와 관련이 있는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시험 점수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확한 채점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채점 결과에 대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서술형 유사정답 및 부분점수 추가와 관련해서는 교과 교사가 모여 협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다. 회의록을 기록한 후 상신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해야 함은 물론이다.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마친 후에는 학생 본인이 제대로 채점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확인했음을 기록으로 남긴다. 수행평가 결과는 점수로 환산되어 성적에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환산이 되었는지 등을 학생이 직접 확인하고 이 역시 사인 등의 방법으로 기록으로 남긴다. 결시자는 대개 학년 초 학업성적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시험이 끝난 후 결시자 처리와 관련하여 서도 학업성적위원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또한 보관한다.



5) 긍정적 관점,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어 기록하기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일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내용을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부정적 내용을 보았을 때 학부모가 느끼는 속상함과 아이가 갖게 되는 두려움 등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의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 부분은 아이 스스로도 알고 학부모들도 알고 있으려니 생각하여 쓰지 않거나, 한창 자라는 아이니까 어른이 되면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기록하려고 노력한다. 설사 부정적인 내용을 기술할 때도 혹시나 상처가 될까 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발전 지향적이거나 에둘러서 표현한다. 과거처럼 ‘이기적이다’와 같은 평어를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는 교사는 현재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긍정적으로만 쓰기에는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아이들이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교실에서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이 부각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무작정 잘 했다고만 쓰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솔직히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써 주기가 싫고), 긍정적인 내용만을 쓰다 보면 평가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이 된다. 입시와 생활기록부 내용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상급학교 교사들의 고민은 아마도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이렇수록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서 기술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다. 알아도 못 고치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거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포기하는 것이지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아는 자신의 단점을 자기만 모르고 있지는 않는다. 부모는 더 잘 알고 있다. 인정하기 싫거나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이의 전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부모가 모를 확률은 매우 적다. 이런 아이와 부모에게 교사의 인정과 칭찬은 나이와 학년을 막론하고 큰 격려가 된다. 자신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물을 선생님이 대신 찾아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없는 것을 있다고 쓸 수는 없지만 평소에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보물을 찾아 간다면 힘든 가운데서도 교사로서의 보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우리교육역음(2004). 빛깔있는 학급운영2. 서울:우리교육

